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도계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995년 10월 9일

총 무 위 원 회

###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10월 4일 삼척시장 제출

나. 위원회 회부일자 : 1995년 10월 5일

다. 심사일자 : 제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95. 10. 9)에서 심사·의결

### II. 제안설명의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김대웅)

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전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기구설치(조정)로 주민복지증진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 사회산업국 교통관광과를 관광개발과로 개편하고, 사회산업국 교통관광과 교통행정업무는 업무성질이 유사한 건설도시국 도시과로 조정하며, 도계출장소를 폐지하고 사회산업국에 광산진흥과를 신설하되 존속기한은 99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출장소의 공무원 정원 30명을 사회산업국 광산진흥과에 한시 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함.

나.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비교 : 별첨

①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②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홍성용)

- 관광개발과의 신설건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회생을 위하여는 우리시 지역여건상 관광개발은 필수적인 것으로 이에 따른 관광업무의 증대 및 관광개발에 따른 전담기구의 신설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교통관광과의 차량업무를 도시과로 조정하는 건은 중앙부처의 업무분장상 교통업무를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계선 조직상 건설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건설도시국의 도시과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광산진흥과 신설건은, 95. 1. 1일 통합삼척시가 출범하면서 광산업무관리의 효율성과 인력해소차원에서 설치되었던 도계출장소를 폐지하고, 광산진흥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에 따른 광산지역의 경기 침체에서 탈피, 지역회생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탄광지역개발 지원특별법이 제정 시행될경우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관리를 위하여도 그동안 도계출장소와 본청 관련실과에서 분산되어 추진하여 온 광산업무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삼척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삼척시 도계출장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개정하여야 할 조례안이라 사료되며,
- 앞으로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업무량에 따른 본청과 읍면동간 실과사업소간 인력 재배분 및 기술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문제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되어야 할 것임.

## N.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계출장소는 시군통합으로 신설된 한시기구이며 사회진흥과, 시민과, 광산진흥과의 존속기한을 99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명시한 것은 존속기한 이후 실과를 다시 개편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li> <li>○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도계출장소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전에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li> <li>○ 지금까지 시의 인사원칙을 보면 기술직과 행정직이 복수직일 경우 기술직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신설되는 과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li> <li>○ 기구설치와 관련한 간담회시 기구설치의 타당성을 의원들이 인정하고 있는데도 의원들이 반대하면 못하겠다는 답변은 의회를 경시한 이야기인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이 확립이 안되었는지 ?</li> <li>○ 복수직렬중 일부직렬에 주택과장 직위에 행정직이 임명되어 있는데 조정할 계획이 없는지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도계출장소를 폐지하고 광산진흥과를 신설하는 것이며,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존속할 가치가 있을경우 별도 검토할 계획임. (총무과장)</li> <li>○ 침체된 도계지역회생을 위한 방안으로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부득히 기구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음. (총무과장)</li> <li>○ 광산진흥과장 및 광산기획계장은 행정직으로 하고, 지역개발계장은 토목직, 광산지도계장은 자원직중 승진대상자가 없어 행정직으로 임명할 계획임. (총무과장)</li> <li>○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주면 시행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가 있을수 있으나, 그 문제는 의사전달을 위한 표현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본뜻은 아니었으며 읍면 결원충원은 본청직원을 감원해서라도 읍면에 충원시킬 계획중에 있음. (총무국장)</li> <li>○ 시군 통합을 하면서 행정직이 많아서 복수직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5급 자연감소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행정직 정원감소를 위하여 앞으로 전문기술직만 충원을 하고 행정직은 신규채용을 안 할 계획임.</li> </ul>

## V.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임동순의원)

- 광산진흥과와 관광개발과를 신설하여 본청에서 직접 업무를 주관함으로써 업무의 일원화와 지역개발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찬성함.

### 나. 반대토론 : 없음

##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 VII. 심사결과 :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됨.

##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